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Objective Debt Burden Variable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for Setting the Guidelines for Household Debt Management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채은석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성영애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MA : Eun-suk Chae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ssociate Professor : Young-Ae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objectively, the types of debt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of households. The questionnaires for 457 households who hold some debt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objective debt burdens which were measured by three variables, that is monthly debt repayment, the ratio of debt repayment to household income and total debt amount, affected the subjective debt burden. The households in which the monthly debt repayment was over 200 thousand won, the debt repayment was over 20% of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total debt amount was over 15 million won felt higher debt burden.
- (2) the types of debts, which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such as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debts

from private sources, credit card debts and debt from retailers, influenced differently the subjective debt burden. Holding debts from financial institutes and debts from private sources increased the subjective debt burden whereas holding credit card debts and debt from retailers did not.

(3) the level of subjective debt burd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change in income due to IMF crisis, financial assets, home ownership, residence, householder's age, job and educational level.

Based on the results, criterion for household's debt management were suggested.

I.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계의 부채이용은 더욱 보편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1996년에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가구의 부채보유비율은 66.5%에 이르며 가구 당 평균 부채잔액은 7,163,300만원에 달한다(한국은행, 1998).

가계의 부채이용은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 기간간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의 가계부채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재정적자, 지불연체, 가계파산과 같은 가계경제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실업과 직장의 이동이 활발하여 소득의 안정성이 불안한 시기에는 미래소득을 미리 앞당겨 쓰는 부채의 이용이 가계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계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부채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부채이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적절한 부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적정규모의 월평균 부채상환액은 어느 정도인가, 소득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채유형을 이용하면 더 좋을까. 이러한 문제는 주택구매와 같이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구매의사결정시기의 선택이라든가 상환기간의 선택, 대출의 출처 등과 관련해서 부채를 이용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의사결정항목이다(이기춘 등, 1999).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가계의 재

무비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채이용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침제공의 중요성을 일찍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문 재무설계사들은 부채이용시 월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의 비율은 20-4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Hira, 1990, Waddell, 1999).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금융환경과 소비환경이 다른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우리 나라의 부채관련 선행연구는 많은 경우 부채보유여부라든가 부채총액, 객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성영애·양세정, 1995, 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등). 부채이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어 왔기는 하지만(심영, 1993, 최현자, 1996), 부채규모라든가 월평균 부채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액의 규모 또는 재무비율의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관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계에게 주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 이유는 부채비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이 객관적 부담은 주관적 부채부담과 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이지만 그 증가형태는 반드시 선형관계는 아닐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Hira, 1990, Waddell, 1999). 즉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관측된 부채부담이 증가하면 주관적인 부채부담감도 증가할 것이지만 특히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주관적인 부채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채유형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분석함으로써 심리적인 부채부담을 증가

시키는 부채유형과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설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서 합리적인 부채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고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부채의 정의 및 유형

부채란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정 기간 타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의 결과 나타난 가계경제의 상태이다. 부채의 유형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구매 후지불의 형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구매 후 일정 기간 뒤에 일시불로 또는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현금을 빌려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신용카드나 할부제도가 이에 속한다. 둘째로는 자금을 직접 대출 받는 형태로서 주택융자를 포함한 공공융권 대출과 사금융 대출이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은 담보여부에 따라 담보대출과 비담보대출로 나뉘어지는데, 담보대출은 특별한 자산을 담보로 하여 상환을 보장받은 후에 대출하는 것이고, 비담보대출은 대부자의 신용만을 근거로 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대출의 상한액도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가계대출액은 약 31%가 신용에 의한 대출이며 나머지는 담보를 이용한 대출로 조사되어있다(양세정·강미나, 1993).

이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사채나 계와 같은 사금융권의 이용도 부채의 주요한 출처가 될 수 있다. 1995년 현재 일반가계에서의 사채이용규모는 약 15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이후 소비자 금융환경의 개선으로 가계의 금융이용이 급격히 제도금융권내로 흡수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가계들이 사채나 계 등의 사금융을

통하여 부채를 사용하고 있다(주인숙, 1996).

부채유형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한도, 대출자격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유형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사채, 신용카드 그리고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의 이자율 및 연체료, 대출한도 및 대출자격을 살펴본 결과 이자율에 있어서는 91년을 기준으로 사채가 최고 24%로 가장 높았으며(이중희·허정수, 1993),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대출한도에서는 사채의 경우 무한대출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종합통장 대출)이 다른데 신용대출은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비해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고 3억 원 까지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2. 가계의 부채부담

부채를 보유하게 된 가계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타의 경제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가계 부채이용의 부정적 영향이 클 때 가계는 부채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객관적 접근법과 주관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 부채부담에 관한 객관적 지표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는데(Prather, 1990, DeVaney, 1994, Lytton·Garmam·Porter, 1991), 객관적인 부채부담 지표는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부채부담과의 관계 속에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1) 객관적 부채부담

가계의 부채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가계부채의 규모, 부채액/총자산, 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 등 다양하다(성영애, 1996). 심영(1993)은 부채보유 규모가 소비지출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여, 부채보유 규모가 부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금융권에서는 자산에 대비한 부채비율에 더 큰 관

심을 기울이는데 이는 부채부담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Langrehr & Langrehr, 1989). 자산대비 부채보유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Scannel(1990)은 총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40보다 클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70이상일 때는 최악의 재정적 긴장을 경험한다고 했다(김연정, 1991, p.25에서 재인용). 장동구·함정호(1994)의 연구에 의하면 75년에서 93년 말까지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증가율은 자산증가율을 앞서고 있는데 부채 대 자산의 비율이 73년 말의 25%에서 93년 말에는 45%까지 높아 졌음을 밝히고 있다.

부채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월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Sullivan & Worden, 1986, Hira, 1990, 성영애·양세정, 1995, 성영애, 1996, 최현자, 1996). 가계의 경우 당해 소득에 근거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부채상환액은 일종의 지출항목이므로 소득의 분배에 있어 다른 지출비목과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대비 월평균상환액으로 측정한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에는 외국의 연구로 Sullivan & Worden(1986), Avery 등(1987), Malowe & Godwin(1988), Hira(1990), Kennickell & Schack-Marquez(1992), Yu(1993)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택보유여부, 가구원수, 신용에 대한 태도, 취업여부, 부채원의 수 등이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서 90년도의 전국규모의 자료를 분석한 성영애·양세정(1995)에 따르면 월평균소득대비 부채비율로 측정한 가계의 평균부채부담비율은 13%이었고 부채보유가계만을 보았을 때 평균부채부담률은 33.99%이었다. 서울시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정빈·이영호(1992)의 연구에 의하면 1992년 현재 서울시 거주 가계는 생활비의 32.05%를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최근 소득 대비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현자(1996)도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밝혀내었다.

2) 주관적 부채부담

객관적 부채부담과는 달리 부채로 인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주관적 부채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로 인한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량적·객관적 접근법과 더불어 심리적·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측정법도 간과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 부채부담지표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고, 객관적 지표는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부담에 초점을 두고 심리적·주관적으로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손상희(1995)가 농가의 부채부담감이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부채부담에 대한 문항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객관적 척도와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최윤지(1999)는 경제적 문제 경험여부나 가계제정만족도의 일부 문항으로 부채로 인한 주관적 부담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가계제정만족도의 일부 문항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이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 부채유형 및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가계가 느끼는 부채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에 따른 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부채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액 및 부채잔액에 있어 어떤 지점에서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특히 증가하는가? <연구문제 2> 부채유형에 따른 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은 어떠한가? 심리적인 부채부담을 일으키는 부채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른 가계의 주관적 부채부담은 어떠한가? 어떤 집단이 부채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위해 부채의 유형을 부채의 주요 원천인 금융기관 대출, 사채, 신용카드 그리고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과 이미 탄 계 등으로 나누었는데 이미 탄 계의 경우 응답자의 응답률이 낮아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유형에 대한 부채보유여부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 사채, 신용카드 그리고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을 합한 개념이다.

객관적 부채부담이란 월평균 부채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부채잔액 등 3가지를 말한다. 주관적 부채부담은 Rettig & Danes(1994)의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를 바탕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부채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①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② 앞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하다 ③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④ 어떻게 갚아 가야 할지 고민스럽다 ⑤ 현재의 생활이 재미없다 ⑥ 살아가기에 힘이 부친다의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아주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사회경제학적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 IMF이후의 가계소득 변화, 금융자산, 가족원수,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거주주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이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서울 및 인천과 수도권내 기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999년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1,400부가 배부되었는데 그 중 총 724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부채를 보유한

가계인 457부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낮은 회수율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가계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부채보유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모든 변인에 대해 평균 또는 백분율을 구하였다.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 부채유형 및 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t-검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 검정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나 객관적 부채관련 자료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객관적 부채관련 자료의 부실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회귀분석을 일관성 있게 하기 어려웠으므로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부채부담의 기준을 찾아내는 데는 Duncan의 검정방법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PC⁺(win 7.5)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보유 특성

조사된 부채보유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보유 특성은 <표 1>과 <표 2>와 같다. 먼저 <표 1>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 집단이 약 49.6%로 가장 많았다. IMF 전후 가계소득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감소한 가계가 75.6%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한 가계는 24.4%로 나타났다. 금융자산보유 정도는 100만원 미만이 25.2%, 100만원~1000만원 미만이 35.2%, 1000만원 이상이 39.7%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70.5%로 대부분이었다. 가족원수는 3명 이하가 23.7%, 4명이 55.4%, 5명 이상이 20.9%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은 35세~45세가 50.0%로 가장 많았고 45세~55세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부의 취업상태는 전업 주부가 62.1%였고, 남편의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54.7%, 자영업/자영업이 30.4%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표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N=457)

변 인	집 단	N	%	변 인	집 단	N	%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74	16.5	남 편 연 령	~35세 미만	43	10.6
	~200만원 미만	222	49.6		~45세 미만	203	50.5
	~300만원 미만	92	20.5		~55세 미만	232	32.5
	300만원 이상	60	13.4		55세 이상	28	6.9
	평 균	173만원			평 균	43세	
IMF 전후 가계소득비교	감소	334	75.6	주부취 업여부	전업	264	62.1
	증가/변동없음	108	24.4		취업	161	37.9
금융자산	~100만원 미만	83	25.2	남 편 직 업	봉급생활자	227	54.7
	~1000만원 미만	116	35.2		자유업/자영업	126	30.4
	1000만원 이상	131	39.7		기타	62	14.9
	평 균	1685만원		남 편 학 력	중학교이하	42	9.8
주택소유여부	자가	321	70.5		고등학교	203	47.3
	기타	134	29.5	전문대이상	184	42.9	
가족원수	3명 이하	108	23.7	거주지	서울	108	23.6
	4명	252	55.4		인천	255	55.8
	5명 이상	95	20.9		기타	94	20.6

졸업자가 47.3%,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42.9%를 구성하고 있었다. 거주지는 서울이 23.6%, 인천 55.8%, 기타 지역은 20.6%로 나타났다.

부채보유특성을 알아본 〈표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계

는 68.3%이었으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는 15.4%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54.0%이었으며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21.1%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차입처별 구성순서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을

〈표 2〉 부채 보유집단의 부채보유 특성

(N=457)

변 인	집 단	N	%	변 인	집 단	N	%		
부 채 유 형 별	금융기관 대출 보유여부	유	312	68.3	관 령 적 부 담 변 인	월평균 상환액	~ 20만원 미만	118	25.8
		무	145	31.7			~ 50만원 미만	135	29.5
	사채 보유여부	유	70	15.4			~ 80만원 미만	50	10.9
		무	385	84.6			80만원 이상	64	14.0
보 유 여 부	신용카드부채 보유여부	유	247	54.0	소 득 대 비 월평균 상환액	~ .1 미만	74	16.2	
		무	210	46.0		~ 2 미만	101	22.1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보유여부	유	96	21.1		~ 3 미만	66	14.4	
		무	359	78.9		~ 1.0 미만	103	22.5	
				1.0 이상	23	5.0			
				무응답	90	19.7			
				부 채 잔 액	~ 500만원 미만	69	15.1		
					~ 1,500만원 미만	108	23.6		
					~ 2,500만원 미만	42	9.2		
					2,500만원 이상	52	11.4		
				무응답	186	40.7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채, 월부금 및 외상 매입금의 순이었다. 1993년 국민은행의 가계금융이용실태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의 72%가 제도금융을 이용하며 28%는 사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우식과 유종권(1993)의 연구에서는 70.1%가 은행을 이용하였고 16.2%는 사채를 통해 부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인 월평균 상환액, 소득대비 상환액, 부채잔액을 알아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관련 액수를 파악하는데 있어 문항의 민감성이 큰 이유로 누락치가 많다는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누락치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채상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상환액은 20만원~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월평균 상환액을 묻는 물음에 무응답을 한 가계의 비율도 전체가계의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중은 0.3~1.0 미만이 22.5%, 0.1~0.2 미만은 22.1%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며, 0.1 미만은 16.2%, 0.2~0.3 미만은 14.4%, 1.0 이상은 5.0%로 많지 않았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500만원~1,500만원 정도가 23.6%로 가장 많았다. 부채잔액에 대해 무응답을 한 경우는 40.7%로 많은 가계가 부채액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1.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표 3〉은 월평균 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및 부채잔액으로 측정된 부채보유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본 것이다. ANOVA와 Duncan test는 각각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리적인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에 대해 되도록 상세한 집단으로 분류한 후 Duncan test를 한 후 최소

〈표 3〉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변 인	집 단	평균	D
월 평균 상환액	20만원 미만	14.04	a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6.69	b
	5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7.29	b
	80만원 이상	18.03	b
	F비	6.848***	
소득 대비 월평균 부채 상환액	.1 미만	12.06	a
	.1 이상 ~ .2 미만	15.20	a
	.2 이상 ~ .3 미만	16.48	b
	.3 이상 ~ 1.0 미만	18.61	bc
	1.0 이상	19.91	c
F비	12.948***		
부채 잔액	500만원 미만	15.29	a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6.95	a
	1,5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9.55	b
	2,500만원 이상	19.60	b
	F비	6.254***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의 집단으로 분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월평균 상환액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월평균 상환액이 많을수록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인 월평균 부채상환액에 따라 특히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는 Duncan test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월평균 상환액이 20만원미만 집단과 그 이상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월평균 상환액 20만원을 기점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증대됨을 보여 주었다.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액수의 증가에 따라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에 따라서는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의 비율이 0.2 미만인 집단(즉 월평균 상환액이 소득의 20%미만인 집단)과 그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소득 보다 부채상환액이 더 큼을 보여주는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 비율이 1.0이상인 집단이 0.3미만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밝혔

듯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상세히 집단을 세분하여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0.2>와 <0.3>, <1.0>이라는 비율을 기준으로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 부채관리지침으로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액의 비율의 기준점으로 권장되고 있는 <0.2>가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유발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합리적 권장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0.2>라는 기준이상에서는 소득보다 부채상환액이 큰 기점인 <1.0>까지는 주관적 부채부담이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부채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심리적인 부채부담이 매우 커져 과잉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부채잔액에 따라라도 주관적 부채부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채잔액이 많을수록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Duncan test 결과 부채잔액이 1,500만원 미만 집단과 1,5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서 부채잔액 1,500만원을 기점으로 심리적 부채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부채유형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표 4>에서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부채유형별 보유여부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금융기관 대출 보유여부에 따라 부채부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계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가계들보다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채이용 여부에 따라라도 부채부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채를 이용한 가계는 사채를 이용하지 않은 가계들보다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신용카드 이용여부에 따라서는 주관적 부채부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가계들보다 부채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신용카드

<표 4> 부채유형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변 인	집 단	평 균
금융기관 대출 보유여부	유	17.49
	무	15.38
	t	3.099**
사채보유여부	유	20.87
	무	16.09
	t	5.649***
신용카드부채 보유여부	유	17.17
	무	16.47
	t	1.101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보유여부	유	16.87
	무	16.82
	t	.067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는 대출용이라기 보다는 구매지불 수단으로서의 사용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보유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월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 부채, 사채와 신용카드,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은 미래소득을 앞당겨 쓴다는 점에서 부채이기는 하나 가계경제에 미치는 그 의미나 영향력이 다름을 입증하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표 5>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IMF 이후 가계소득의 변화,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족원수, 거주지,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연령, 남편의 직업, 남편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라 주관적 부채부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회경제학적 변인 중 가족원수와 주부의 취업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 따라 주관적 부채부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낮을 수록 주관적 부채부

〈표 5〉 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

변인	집단	평균	D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1.10	a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27	b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4.75	c
	300만원 이상	12.71	d
	F	23.202***	
IMF 이후 가계소득 변화	소득 감소	17.55	
	소득 증가 (변동없음도 포함)	14.52	
	t	4.113***	
금융자산	100만원 미만	17.06	a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6.71	a
	1,000만원 이상	13.35	b
	F	12.561***	
주택소유 여부	자가	16.08	
	기타	18.68	
	t	-3.795***	
가족원수	3인 이하	16.91	
	4인	16.68	
	5인 이상	17.15	
	F	.177	
거주지	서울	18.64	a
	인천	16.24	b
	기타 중소도시	16.48	b
	F	4.935*	
주부의 취업	전업주부	16.74	
	취업주부	16.66	
	t	.115	
남편의 연령	35세 미만	14.07	a
	35세 이상 ~ 45세 미만	16.77	b
	45세 이상 ~ 55세 미만	17.72	b
	55세 이상	16.36	ab
	F	3.152*	
남편의 직업	봉급생활자	16.03	a
	자영업/자유업	16.98	a
	기타	18.85	b
	F	4.350*	
남편의 학력	중학교 이하	20.33	a
	고등학교	17.83	b
	전문대이상	14.80	c
	F	17.006***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담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었다. Duncan test 결과 모든 소득 집단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가계소득의 변화여부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의 경우는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계가 소득이 변동 없거나 소득이 증가한 집단에 비해 부채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다.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부채부담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Duncan test 결과 금융자산 보유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가계와 1,000만원 이상인 가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한 가계보다 소유하지 않은 가계가 부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느끼고 있는 부채부담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인천지역이나 기타도시 거주자들보다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test 결과 서울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서울 거주자와 기타 중소도시 거주자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연령별로는 남편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채부담이 낮게 나타나며 중간연령층의 경우 부채부담이 높은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부채이용 정도에 기인한 결과라 보여진다.

남편의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 자유업 종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부채 부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타(무직, 은퇴, 학생 등)로 분류된 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학력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을 살펴보면,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채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Duncan test 결과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전문대졸 이상 응답자간에 느끼는 부채부담이 모두 다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가계와 중간연령층, 그리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계와 남편의 학력이 낮은 가계에서 부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채보유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변인, 부채유형 및 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라 주관적 부채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부채관리를 위한 객관적 부채지표 및 기준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실시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인 월평균 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부채잔액이 주관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상환액은 2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월평균 상환액은 대략 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었다.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은 <0.2>를 기점으로 <0.2>이상인 집단에서 주관적 부채부담이 유의미하게 더 컸다. 또한 소득보다 부채상환액이 더 큼을 보여주는 <1.0>이상인 지점에서 주관적 부채부담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월평균 부채상환액은 대략 월평균 소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절함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월평균 상환액이 소득의 20%에서 100% 범위 내에서는 주관적인 부채부담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도를 유지하다가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증폭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를 관리함에 있어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채잔액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기점으로 1,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채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채를 이용함에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채를 이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됨을 시사해 주었다. 부채가계에 대한 재무교육 및 상담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입각한 기준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가계의 부채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객관적 부채부담 변인의 경우 주관적 부채부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값을 비교하였을 때 월평균 상환액,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부채잔액 중에서 소득대비 월평균 부채상환액의 경우 주관적 부채부담과 더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일반 가계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월평균 상환액은 절대규모나 부채잔액의 조정보다는 소득에 대비하여 월평균 상환액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후속연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대출보유여부, 사채보유 여부, 신용카드부채 보유여부,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보유여부에 따른 주관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사채를 보유한 가계는 이러한 유형의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보다 에서 주관적인 부채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채를 보유한 가계가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가계보다 부담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채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신용카드부채 보유여부와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 보유여부에서는 주관적 부채부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용카드의 경우 주로 지불수단의 용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부채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사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월부금이나 외상매입금이 있을지라도 부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불 때 심리적 부담감소를 위한 부채관리교육 및 상담에서는 부채보유가계를 부채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경제학적 변인이 주관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계소득, IMF 이후 가계소득의 변화,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거주

지와 남편의 연령, 남편의 직업, 남편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이 낮고, IMF 이후 가계 소득이 감소한 가계와 금융자산이 적은 가계일수록 주관적 부채부담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부채보유가계들이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더 높은 편이며, 남편의 연령이 35세에서 55세인 집단과 직업이 일정치 않은 집단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심리적인 부채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계 및 확대기 가계의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 큰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객관적 부채지표의 조정을 통한 심리적 부채부담의 감소와 같은 부채관리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이 개별가계의 부채보유액과 부채별 유형, 객관적 부채부담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근을 취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이들 변인을 활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동시에 보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별 유형을 금융기관 대출, 사채, 신용카드와 월부금 및 외상매입금의 네 유형으로만 살펴보고 그 외의 차입처는 자료부실로 배제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부채별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질문지의 회수율이 낮고 무응답율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로 인해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제한이 있었다. 이상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2) 문숙재 · 김순미 · 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8-169.
- 3) 문우식 · 유종권(1993). 한국인의 소비관행 및 소비자 신용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민경제 교육연구소.
 - 4) 성영애(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83-194.
 - 5) 성영애 ·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6)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7)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4(2), 29-50.
 - 8) 양세정 · 강미나(1993). 가계 금융이용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 국민가계연구소.
 - 9) 이기춘 · 박명희 · 윤정혜 · 손상희 · 김정자 ·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학현사.
 - 10) 이중희 · 허정수(1993). 전세금의 제도금융화 방안. 주택금융.
 - 11) 임정빈 · 이영호(1992). 서울지역 주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 사용 동기, 관리행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45-261.
 - 12) 장동구 · 함정호(1994). 민간 부채 누적의 경제적 효과.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13) 정선희(1987). 도시 주부의 재정문제 인지정도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14) 주인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15) 최윤지(1999). 농가주부의 경제문제 경험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학회지 제 26차 학술대회 자료집, 138-151.
 - 16)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17) 통계청. '96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 18) 한국은행(1998). 한국은행월보.
 - 19) Avery, R.B. et al. (1987), Changes in Consumer

- Installment Debts: Evidence from the 1983 and 1986 Surveys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October, p.761-778.
- 20) DeVaney, S. A. (1994).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To perspectives, *Fina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5, 5-24.
- 21) Hira, T. 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165-175.
- 22) Kennickell, A. & Shack-Marquez, J. (1992), Changes in Family Finances from 1983 to 1989: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78(1), January p.1-18.
- 23) Langrehr, V. B. & Langrehr, F. 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393-406.
- 24) Lytton, R. H., Garman, E. T. & Porter, N. 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2, 24.
- 25) Marlowe, J. & Godwin, D.(1988). The relationship of income and human capital to debt/asset ratio of farm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1), 95-109.
- 26) Prather, C. 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1, 53-69.
- 27) Rettig, K. D. & Danes, S. M. (1994). Economic Adjustments to Perceived Stres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28-135.
- 28) Sullivan, C. & Worden, D.D.(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
- 29) Waddell, F.E. (1999).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김경자의 편역. 시그마프레스.
- 30) Yu, J.(1993). Determinants of households' asset/debt holdings and debt burdens. *Proceedings of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9-401.